

##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2 주

사람의 말을 제재하시는 하나님-1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내용

2007년 10월 1일 ~ 10월 13일

##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399, 402, -, 59 (영 538, 541, 547, 64)

성경: 누가복음 9:27-36, 로마서 9:30-33; 10:1-21, 7:1-6

## 📖 누가복음 9장 27-36절

<sup>27</sup>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sup>28</sup>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sup>29</sup>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sup>30</sup>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sup>31</sup>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sup>32</sup>베드로와 밋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밋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sup>33</sup>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sup>34</sup>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sup>35</sup>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sup>36</sup>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 📖 로마서 9:30-33

<sup>30</sup>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sup>31</sup>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sup>32</sup>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sup>33</sup>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 📖 로마서 10:1-21

<sup>1</sup>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sup>2</sup>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sup>3</sup>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sup>4</sup>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sup>5</sup>모세가

기록하되 **올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sup>6</sup>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sup>7</sup>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sup>8</sup>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sup>9</sup>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sup>10</sup>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sup>11</sup>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sup>12</sup>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sup>13</sup>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sup>14</sup>그러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sup>15</sup>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sup>16</sup>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sup>17</sup>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sup>18</sup>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sup>19</sup>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키나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sup>20</sup>또한 이사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sup>21</sup>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 로마서 7:1-6**

<sup>1</sup>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올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sup>2</sup>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sup>3</sup>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sup>4</sup>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올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sup>5</sup>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올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sup>6</sup>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올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 제 2 주 : 사람의 말을 제재하시는 하나님-1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내용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 히브리서 1:1-2상

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제재하시는데 있어서 매우 뛰어나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이 매우 많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은 그곳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은 오직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에 있어서 뛰어나시다. 거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차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에 있어서 뛰어나실 뿐 아니라 가장 잘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 사람이 말하는 동안 하나님은 들으신다. 구약에서, 몇 사람들이 말했는데, 그들의 말은 매우 불쾌할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심지어 나조차도 그들의 말에 화가난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셨다.

... 성경에 다른 나머지 부분들보다 더 많이 사람의 말을 기록한 책이 한 권 있다. 이것은 욥기이다. 욥기는 마흔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서른 다섯 장이 사람의 말이다. ... 욥기는 하나님이 매우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조금도 조금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전혀 의미 없이 말하거나 무리한 추측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셨다. 만약 우리였다면 한 두 마디의 틀린 말을 하자마다 곧 그들의 말을 중단시켰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그들의 말을 제재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듣지 못한다. 하지만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신다.

... 신약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 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는 말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가 우리의 형제이자 사도인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가 보이기만 하면 그는 말하고 있었다. 기회가 오기만 하면 그는 말했다. 세 구절들-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많이 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세 경우에 있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말을 마칠 때까지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세 번 말했는데, 세 번 모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다 말하도록 두지 않으셨다. 베드로는 단지 몇 마디만을 말했으며, 한 문장이나 긴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말을 제재하셨다. 따라서,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제재하심」이다. (워치만 니 전집 2집, 제1권, pp.135-136)

☞ ☞ ☞ ☞ ☞ 화요일 ✨ ✨ ✨ ✨ ✨

📖 고린도전서 2:1, 4-5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제재하심

베드로가 세 번 말하는 동안 모두 제재 받은 것은 이상하다.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의 말을 제재하셨다. 두 번째로 아들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의 말을 제재하셨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그의 말을 제재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말을 하늘로부터 제재하셨다. 아들 하나님은 집에서 그의 말을 제재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방인들 한 가운데에서 그의 말을 제재하셨다. 하나님은 그가 계속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제재하셨다. 한 경우에는, 베드로가 몇 마디를 말한 후에 제재하셨다. 다른 경우에는 그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제재하셨다. 세 번째는 그가 긴 설교를 말한 후에 베드로를 제재하셨다. 이 세 경우 베드로는 말하였고, 하나님은 매번 제재하셨다. 만일 이 세 번의 경우를 구약의 욥의 이야기와 비

교를 한다면,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셨다. 사람은 항상 말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기꺼이 사람이 그렇게도 많이 말하도록 하셨다. 만약 이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베드로가 말할 때 세 번이나 그의 말을 제재하셨는가? 율기를 읽어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인내를 갖고 들으실 수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가 계속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마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람의 말을 인내를 갖고 들으실 수 있다.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께서 제재하신 것은 베드로의 말이 제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그 말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의 말은 더이상 듣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 말들은 가치가 없는 말이고 제재 받아야만 했다. 만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셨다면, 그것은 그 말이 제재 받아야 하며 계속될 수 없는 말이라는 뜻임에 분명하다.

우리가 이 세 구절들을 고찰할 시간을 갖는다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베드로의 말이 기독교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재 받아야만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세 가지 경우의 말이 계속되었다면 기독교는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세 가지 말들이 계속되었다면, 기독교는 전복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말을 제재하셨다. 이것은 기독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하며, 사람의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없다. 만약 사람의 관점을 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제재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숙고하여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제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자. (同, pp.136-137)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누가복음 9:35-36상**

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

**📖 로마서 10:17**

17.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I. 기독교의 내용 - 우리의 개인적이 계시와 인도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

**A.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심 - 새로운 계시가 사도들에게 열렸음**

주님은 변화산에서 그분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시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 주셨고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온 분임을 보여 주셨다. 이것은 바로 베들레헬에서부터 시작한 예수가 분장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다. 그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어떠한 그리스도이신지를 몰랐다. 변화산에서 그분은 잠시 동안이나마 그분의 분장을 벗고 그분의 본래의 모습을 그들에게 한 번 보여 주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어떠한 그리스도인가를 보게 하셨다. 그분의 제자는 많았지만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의 눈이 그분에 대해 열리지 않았는가? 변화산에서의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분장을 벗어서 제자들에게 새 계시를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지 보게 한 것이다.

**B. 신약과 교회 안에서 주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점유하심**

그때에 모세가 왔고 엘리야도 왔다. 모세는 율법을 전했고 엘리야는 선지자였다. 율법과 선지자가 모두 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그는 구약의 주된 특징을 보았다. 그는 또한 신약의 주된 특징인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가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다. 베드로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제재의 의미는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조화될 수 없음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바로 몇 장 전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마 11:13)라고 하셨다. 『요한까지니!』 하나님의 왕국이 그 때로부터 시작하였다. 율법과 선지자들과 하나

님의 왕국은 연속적이며 서로 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두 무리가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아무도 모세나 엘리야보다 높은 지위를 갖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나란히 설 수 없다.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을 것을 말하였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가 첫번째 것은 주 예수께서 취하신다 하였지만, 두번째와 세번째의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야 할 것을 뜻하였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두번째와 세번째 자리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기독교와 신약에서 절대로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기독교 안에서, 신약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점유하고 계신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은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목소리를 들으라. 베드로가 초막 하나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를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를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눅 9:35).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 첫째는 지금은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라 들을 때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할 때라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베드로야, 입 다물거라. 네가 말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너는 다만 들어야 한다.』 라는 뜻이다. 두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그곳에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베드로는 세 사람들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만을 말했다. 베드로는 세 이름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이름만을 지명하셨다. 달리 말해서, 베드로는 세 이름을 지명하였으나, 하나님은 오직 한 이름만을 받으셨다. (同, pp. 137-142)

### ☞ ☞ ☞ ☞ ☞ 목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 베드로후서 1:16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 📖 고린도후서 3:15-16, 18上

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C.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 1. 사람이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 더이상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어졌다.

율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옳고 그름에 관한 죽어 있는 규칙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죽어 있는 도덕적 규범이다. 그것이 율법이다.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준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보여 준다. ... 사람이 율법을 알게 될 때 더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차이점이다. ... 하나님은 몇 가지 율법들을 내려 놓으셨다. 구약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필요가 없었다. 구약 때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한,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 한 그들은 유대교의 선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도 의롭게 될 수 있었다. 스가라는 구약 때에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적어도 그가 유대교의 아주 훌륭한 사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그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가라처럼 의로운 사람조차도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도 들을 수 없었다. 율법에 따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규례에 따르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몰랐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몰랐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율법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규정들은 율법이다. 따라서, 구약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필요가 없었거나 하나님과 관계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단지 의문의 율법에 안주하기만 하였다.

... 무엇이 신약인가? 신약은 율법을 가져가고 그리스도 자신으로 하여금 주

(主)가 되게 한 것이다. 율법은 더이상 주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나가지 않는다. 오늘날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속한 보좌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역시 영광을 받으신다. 변화산 위에서 주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베드로는 그의 눈으로 주 예수의 존귀와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다(벧후 1:16-17). 하나님은 주 예수께 존귀와 영광을 주셨다. 오늘날 하나, 혹은 둘, 혹은 셋의 초막들이 있는가? 초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초막들은 우리의 마음이다. 하늘에 있는 보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세 곳-모세를 위한 곳, 엘리야를 위한 곳,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곳-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오직 한 곳만이 있는가?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외적인 것들 즉 율법이나 선지자들과 같은 것도 갖고 있다. ...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인도하심은 내주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죽은 규례나 생명이 없는 율법의 어떠한 외적인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나는 성경을 경멸치 않는다. 여러분 중 몇몇은 우리와 수년 동안 집회를 가져왔을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책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책을 규례와 율법의 책으로 만들 수 조차도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오늘, 나는 성경이 규례와 율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감히 말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이 단지 규례나 율법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의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오늘의 질문은 그리스도에 의해 쓰여진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 사이에 사는 차이점이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은 성경을 우러러 보았으며 율법이 말하는 바를 찾고자 했다. 신약 시대는 다르다. 성경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만약 우리가 외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제재하실 것이다. 오늘의 질문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同, pp. 139-140)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태복음 11:13**

13.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 **로마서 10:4**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C.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계속)**

**2. 사람이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 내적으로 정결할 필요가 없어졌다.**

형제들이 종종 내게 와서 이렇게 묻는다. 『니 선생님, 당신의 의견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나는 왜 그들이 질문하는지를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한 사람이 이 구절을 이와 같이 해석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은 내 요점을 알았는가? 그들의 삶의 원칙은 율법인 것이다.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 율법의 해석을 제시했을 때, 그들은 혼란스럽게 된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외적인 율법들뿐이란 말인가? 만약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단지 외적인 율법들이라면, 우리는 내적 인도함에 대하여 분명치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미 외적인 율법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나의 형제의 손을 잡고 그의 가슴을 짚으며, 『당신의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당신의 귀가 들은 것을 잊어버리시오. 당신의 마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이시오.』 라고 말해 준다. 많은 경우 성경에 대해서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지 않은 문맹이고 단순한 사람들보다 더 나쁜 판단을 한다. 단순한 사람은 그가 평강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나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 종종 단순하고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내리는 판단은 유명하고 지식이 풍부하며 교육을 받은 신학자들보다 더 낫기도 하다. 오늘날의 핵심은 외적인 문제들과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의 의문이자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이라는 것에 대하여 명확해야 한다. 만약 기독교가 이와 같은 것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박식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성경 지식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해야 했을 것이다. 기독교가 지식이나 학문 위에 세워지지 않았음을 주께 감사하자. 기독

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영리한 사람은 만약 그 내적 목소리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것이다. 단순한 사람도 역시 그가 그 내적 목소리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것이다. 최근, 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 일흔살 된 여인을 만났는데, 그는 전에 성경을 한번도 읽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인이 받아들였던 것과 같은 정도로 인도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 그녀는 단지 몇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믿는이었다. 그녀는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다. 만약 당신이 그녀와 율법에 대하여 얘기하였다면, 그녀는 그것에 대하여 어떤 것도 당신께 얘기해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율법 조항도 외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적 존재는 매우 분명하였다. 그녀의 내적 존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녀를 인도하였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우리 외부의 그 어떤것으로부터 나와서도 안 된다.

### 3. 사람이 율법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 없고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율법을 선호한다. 율법을 따르는 것은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대할 필요가 없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없으며, 매우 쉽게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와 관계될 필요가 없다. 외적 자격과 지식만 있다면 모든 것은 괜찮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람이 지혜의 문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 지도 어디로 가야 할 지도 모르게 될 것이다. 많은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하여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내게 와서 물었다. 친구들이여,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이 한다면, 당신은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기독교의 계시는 이 성경에서 오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계시는 이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만약 일반적인 계시를 보고자 한다면, 당신은 성경 안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일반적인 계시만을 갖고 있고 개인적인 계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구약 안에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성경이나 율법이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는 당신 안에 계시는 그 분이 말하는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성경만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성경

만을 갖고 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옳고 그름이 되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덕적 표준이다.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틀린 것이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내적 인도하심이 그 모든 문제이다.

**4.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그리스도에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많은 현대의 베드로들처럼 율법이 그리스도에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 초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 중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재하기 위하여 오신 이유이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성경이 소용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래에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이 성경이 얼마나 유용한 책인지 말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가 다만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이다. (워치만 니 전집, 2집 제1권, pp.141-142)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로마서 7:4**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 갈라디아서 5:18**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 히브리서 8:11**

11.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I. 기독교의 내용 - 우리의 개인적이 계시와 인도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 (계속)**

## D.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인가?

### 1. 선지자는 율법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 율법은 죽었으나 선지자는 살아 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다만 어떤 것들 만을 결정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말해 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 ... 이것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있는 이유이다. 구약에는 율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있다. 모세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있다. 무엇이 선지자인가? 선지자는 율법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 율법은 죽었으나 선지자는 살아 있다. 율법은 기록된 것이지만 선지자는 말하고, 인도하고, 어떤 길을 택하여야 할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준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 이것은 절대적으로 특별하고 개인적인 어떤 것이다. 이것이 그 선지자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나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한 근거와 원칙들을 찾기는 쉽다. 이것이 율법의 방면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선지자의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이고도 구체적이다. 하나님은 내가 ‘용난’이나 ‘안난’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티벳이나 사이암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가야하고 언제 가야 하는가? 이것들은 구체적인 것이며 개괄적인 원칙들이 아니다. 이것이 구약에 율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있었던 이유이다.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합당한 길로 인도 될 것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자들 중 특별한 부류이다. 선지자들이 다만 장래를 말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지 말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 하고 있다.

### 2.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계급이 없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는 초막 하나를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선지자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선지자들을 위한 초막을 예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선지자들은 허락될 수 없었다. 더이상 어떤 선지자들도 있을 수 없다.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땅과 바다를 채우는 한 가지이다. 새 언약에는 아무도 그의 이웃을 가르치거나 그의 형제가 주님을 알게 할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이웃과 형제의 계급이 소멸되었다. 새 언약에는 그와 같은 사람의 계급이 필요치 않다. ... 이제 우리는, 왜 바울이 몇몇 성

도들의 충고를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들이 그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울이 안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의 문제였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다른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없다. 오늘날 더이상 선지자의 계급은 없다. 그것은 끝났다. 그것은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날 주 예수께서만 홀로 담당하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이들에게 물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수 없다. 성경 교사는 사람들에게 원칙들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는 원칙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특별한 계급의 사람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내적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도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의문이나 살아 있는 사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며, 우리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기독교이다. 다른 어떤 것도 고려될 수 없다.

**E. 지금은 그리스도에 귀 기울여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들어야 할 때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실수이다. 그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야 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기독교를 갖고 있는가? 믿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모세와 엘리야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자가 베드로였다. 그는 분명코 그리스도를 첫번째로 두었으나,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을 원했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지 않았을까 두렵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단지 그리스도만 원하지 않을까 두렵다. 그들은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세 초막을 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하는 하늘로부터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 그의 말을 듣거라!』 지금은 그리스도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의 말을 들을 때이다. (同, pp. 140-142)

## ◆ 추구 자료 ◆

1. 위치만 니 전집 2집 제1권, 제11장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심』

### 제 3 부: GTA 권속 교통

#### 1. 교회 생활 안에서의 체험

##### ◆ 그리스도의 말만을 들음

한 형제가 한번은 내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그에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어 그에게 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내가 단지 한 사람의 교사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기도 한 것으로 생각했다. 『니 선생, 부디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에 관하여 어떤 것이든 말씀하시면,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신약을 뒤집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신약에서는 율법이 가야 할 뿐 아니라, 선지자들도 역시 가야 한다. 어떤 조례들도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사람도 없어야 한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난칭’이나 ‘수초우’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역사 위에 올라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들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결과로만 와야 한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주님이 우리가 ‘난칭’으로 갈지 ‘수초우’로 갈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위치만 니 전집, 2집 제1권, pp. 141-142)

#### 2. 기도의 부담

1. 매주 인수를 지속적으로 더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매우 축복하셨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인수를 더하게 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a) 이번주 토요일 9월 29일 오후 5:30부터 9시까지 Hall 1에서 있을 중국어 복음집회를 통하여, 주께서 초청을 축복하시고, 초청자들을 데려오시며 주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구원하소서. (b) Hall 3 주변의 Victoria Village의 이웃으로 영어권 복음 전파를 통하여.
2. 우리 청소년 내에서 계속되는 결실의 역사를 주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축복 속의 체험과 활동으로 가득했던 여름에서 그들의 일상의 신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격려하사 주님을 추구하고 서로를 위하여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께서 봉사 형제들을 강건케 하시고, 더 많은

봉사의 일어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3. 다가오는 Canadian Thanksgiving Day Conference(영어와 중국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3. 소식 및 안내

#### 집회 안내

a. 추수감사 집회 일정:

##### 금요일

6:00pm : Young People's supper

7:00pm : Wildfire meeting

##### 토요일

10:00am - 12:00pm : Gospel Fellowship

12:00pm - 2:00pm : Pizza Lunch

2:00pm - 4:00pm : Gospel Activities

5:00pm - 7:00pm : Barbeque

7:00pm - 8:30pm : Singing and Gospel

##### 일요일

10:00am - 12:00pm : Regular Schedule

#### 청년 학생

a. -

#### 아침 부흥

a. 10 월 1일부터 13일까지를 위한 아침 부흥지가 나왔습니다.

#### 기타 안내

a. 영어 성경 교실(현재 사도행전 진행 중)이 격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애찬이 있는 주일에, 애찬을 마친 후, 약 한 시간 동안 Nigel 형제의 봉사로 진행됩니다.

####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Hall 1,2 & 3	Sunday, 10:00 AM	Hall 1	671 Sheppard Ave. E, North York,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Hall 1	Saturday, 7:00 PM	Hall 2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Meeting	Hall 2	Friday, 7:00 PM	Hall 3	7 Gret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Meeting	Hall 1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Hall 1 & 3	Tuesday, 7:30 PM	소그룹1	매주 토요일 오후 1: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1)
	Hall 2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수요일, 저녁 7:00 (한국어 가정 소그룹2)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http://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